

##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

### 혼인 잔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22:1-3)

이 비유에는 먼저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22:4-7)

이 비유는 예언적입니다. 제일 먼저 종들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으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제 잔치는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종들이 가서 오라고 하였으나 초대받은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시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도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전하지만 그들이 거부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디도에 의해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몰살될 일을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어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22:8-14)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주인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올 때 그들은

영접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 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대”(22:15-17)

그들은 여러 궁리 끝에 이 질문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교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다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분을 마워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며 반역자라고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로마와 작당하고 있다고까지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직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노라고 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으나 자신들을 로마의 노예로 여기지는 않았습다. 당연히 그들은 세금 바치는 일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들은 로마의 관리에게 세금을 거부하는 반란을 주동한다고 보고하여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의 질문에 숨겨진 의도를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시며 동전을 가져오도록 명하셨습니다.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22:19-20)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22:21-22)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그들은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22:23)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자들이었고 그들 시대의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22:24-28)

그들은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이 허황된 개념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처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장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둘 다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 때 이 심장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죽어서 넓은 들관의 땅 속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몸은 분해되어 흙 속에 섞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자라는 풀의 뿌리가 땅 속의 성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들이 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 소들에게서 나온 우유를 우리가 다시 마시게 되며, 한 때 다른 사람의 몸을 이루었던 화학적 요소가 우리의 몸 안에서 동화됩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어느 몸으로 이 화학적 요소들이 가게 됩니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들은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나아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오해합니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새 형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문제 거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22:30)

결혼의 목적은 건강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선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감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체로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므로 그때 가서야 우리는 알게 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며 별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22:31-32)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기 3:6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22:34-40)

바울은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고,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으며 그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율법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나타납니다. 이 두 계명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22:41 -42)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나?”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범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고 대답했습니다.

36절에서도 그들은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쉼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쉼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고 시작되는데, 이 말에서 히브리어 ‘에하드’라는 단어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에하드’는 집합적 단일체(compound unity)를 의미하는데 비해, 하나를 의미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야키드’는 절대적 단일체(absolute unity)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서 ‘에하드’는 집합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한 회중으로 여기 모여 있다’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 각인이 한 개체로서 모여 있지만 전체가 하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에하드’라는 단어가 ‘한 회중’의 ‘한’에 해당하는 말로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단일체를 의미하는 ‘야키드’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되어 홀로 사용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야키드’로 쓰여졌다면 오늘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성립될 기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합적인 단일체인 ‘에하드’가 쓰여졌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하드’는 하나 이상을 뜻하지만 여전히 하나 안에 일치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세 분으로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좌에 영원히 앉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일반적 호칭으로 쓰였습니다. 예리고에서 소경들이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으나 그 이상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서 출생된 그분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22:43-45)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하여 노래한 시편 110:1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메시아를 그의 주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라면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주로 칭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로 부르느냐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들 사회의 문화 관습에 전적으로 상반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아버지가 자식을 ‘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주’라 부르는 것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가에 관한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다윗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대언자였음을 증명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2:46)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만약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내용은 많습니다. 시편 2:7에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무엘하 7:14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중 메시야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6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은 나사렛의 어느 남자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경의 증거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